

♣ 소 감 문 ♣

성 명 : 박미련

팀 명 : 12교구 1팀

동역교회 : 하늘시민교회

사역기간 : 19년 6월8일 ~ 6월30일

나는 동역교회 사역은 처음이라서 많은 생각과 기도로 준비 하였으나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동역자의 도움과 기도로 오직 성령님의 인도로
나가기로 하였는데 좋은 결과를 갖게 된것 감사 하게 되었다
목요일 오전 3점 탑후 오후부터 조별로 노방축회 방문 전도 하게 되었다
천천시에 있는 교회로 부근에 많은 교회가 있어서 행방된 곳에서 사역
하게 되었는데 어려운가운데도 많은 복을 만나서 주일예배에 초청했으며
금요일에는 떡볶이 전도를 겸하여 허락을 하늘시민교회로 초청 하게
되었다. 아파트 식점 방문은 참여하였고 연구문 앞에서 노인집에서
노방 전도로 많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권면하였다
주일 예배 시작전 노인정에서 약속한 15명 전후 단체로 참석하였고
개인, 학생, 어린이는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새로운 분들, 불교회
성도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회 목사님의 "예수님과 나의
만남은 가장 큰 축복" 이란 말씀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선물과 점심 대접으로 사역을 마쳤다.
하늘시민교회는 동역교회 전도시 우선 팀으로 처음이라고 목사님
사모님 모든 교인은 기뻐해주었고 은혜로웠다고 말씀하셨다.
여하튼 작은 교회에서 꼭찬 예배는 참 좋았고
동역자들이 성령 인도 하심 따라 33주 열심히 한것도 은혜라
찬양이 되었다고 본다
만기전교에서 노방전도 축회 축교전도에서 모아서 이야기
하고 전도시 주고 떠났지만 동역교회에서 예배드림에
참중 하는것도 큰 은혜로 생각되었다. 오사이 만기전교팀이
행려, 동역사역으로 교회에 모이게 해서 예배 드림과
같은 사역이였다고 생각된다. 조별로 동역교회 팀은
좀더 전부터 내역을 알아서 참중으로 한사람이라도
정착하는데 연구 세밀히 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 소 감 문 ♣

성 명 : 유승열

팀 명 : 12교구1팀

동역교회 : 하늘시민교회

사역기간 : 2019년 06 월 28 일~6 월 30 일

직장 관계로 수년을 선교와 동역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없었던 나에게
동역교회 팀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하늘시민교회와 동역하는 전도사역을 앞두고 기도와
간구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다.

늘 느헤미야 기도회에서 -보내 주소서 보내 주소서 찬양을 부르면서

동역교회 파송 팀 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미안한 맘 이었다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어”.....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동역교회 전도사역이 되게
시옵고 성령 충만한 팀원들로 준비하셔서 모든 준비함과 전도사역이
주님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속에 동역교회 사역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기도로 팀원들과 한 마음이 되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기꺼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에 동참해 주신
팀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 날마다의 삶이
겸손과 섬김과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오늘도 무릎을 꿇게
된다.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교구식구들께 감사를 드리며 처음부터
종료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 소 감 문 ♣

성 명 : 박 정 매 팀 명 : 12교구 1팀
동역교회 : 하늘 시민교회 사역기간 2019년 6월28일 ~ 6월30일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하늘시민교회 다녀왔습니다
먼저 첫째날에 본교회 새벽기도와 6시에 ^{조금} 다들 예배
드린후 6시30분에 교회를 출발하여 동역교회에 9시30분에
입적 도착했습니다. 아침인데도 그곳 춘천은 매우 더운 날씨
였습니다.

먼저 예배드리고 우리가 전도한곳은 그곳 교회성도와 함께 보냈
습니다. 조금 쉬후에
오후4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덤과 숨이찬 날씨지만 우리 모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APT 단지며 사람들이
차로 다니므로 ^{전도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했을까? 생각할때 앞에 계로당이 보여서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가
교회에서 전도 있다고 말씀드리며 예수님 말씀 간절히 전하며 주님에는
초청장치가 있다고 꼭 메시지를 약속하며 주일날 10:40분에 모시러
오겠다고 약속하며 돌아왔다. 동역교회 전도 나가서 약속해도 만
무사는 분들이 계시어 금요일 기도회에서는 예배된 사람들은 초청장치에
보내달라고 ^{또한 동역교회 기도제목도} 열심히 우리팀 모두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 결과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초청장치에 참석하셔서
즐겁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를 알리지 못 말리지 는 주님의 권능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인도
해 주시누. 기쁘. 더욱 깨닫게 되누. 감사라 시작되어,습니다

동역교회를 다녀와서

2019년 6월 28일 날은 춘천에 있는 동역교회에 (하늘시민교회) 전도하는 날이라 설레는 마음 때문인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춘천은 호반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아늑한 작은 도시마을 이다.

청년 시절에 전도하는 마음은 한 생명을 구원 시키는 것이라 지금까지도 늘 주님께 감사하며 즐거움뿐 이다.

그 감사의 장면을 눈으로 피부로 교감하며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매개체로 되어지는 체험의 현장으로 간다.

잃어버린 어린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험난(狹難)한 계곡을 지날지라도 한 생명의 소중함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느껴 지는가?

자! 일어나 앞으로 전진 하며.... 춘천 길로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

피곤한 기색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보혈피의 공로로 성경 말씀을 전한다면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춘천 후평동에 자리 잡은 하늘시민교회, 소박한 가족 분위기의 교회에 작은힘 들이 모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시작 되었다

교인 15명의 아늑한 교회에 예수 초청잔치날을 정하고 그 잔치날에 초대하기 위한 전도는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었다



첫날은 비가 간간히 내리는 오후 교회 주변에 있는 후평동 동산아파트단지내(194세대) 말씀 전도 및 떡볶이 시식 제공하며 단지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하늘시민교회소개하며 화기애애(和氣霽霽)하게 단지내 사람들에게 기쁨과 하나님 사랑을 선사 하였다.

둘째엔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흐린 날씨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 발걸음을 가볍게 후평동 세경아파트 단지(540세대)로 갈수 있었다.

이 단지내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정을 방문하여 율동과 떡볶이를 제공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과 은혜를 받은 어르신 13분을 예수 초청잔치날에 모시게 되었고,

하늘시민교회 교인 중에 모녀사이의 관계를 말씀으로 원할히 유도하여 어머니가 믿는 예수의 말씀 들으 러 불신앙중인 자녀가 교회로 와서 예수초청잔치날에 간증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셋째날은 하늘은 마을을 돌며 전도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날씨를 주셨다. 이 날은 거룩한 주일이 며 예수 초청잔치날 이라

지난 이틀동안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한 보람을 가시적으로 확인 할수있는 소망의 날이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예수 초청잔치날을 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늘문을 여시여 작은 기적의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
 초청에 초대된 초신자들이 예상보다 많이 27분이 오시게 되었고, 기쁨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며 식당을 빌려 60인분의 삼계탕과 간식을 제공하여 기존 교인들과 함께 모두들 흡족한 표정으로 맛나게 식사를 하게 주셔서 더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훈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절, 14절)

이와 같이 모두가 하나로 준비된 주님을 향한 기도와 눈물의 희생 정신이 없었더라면 이뤄 질 수없는 광경을 직접 체험 하게 되니 나 스스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살아 계시며, 우리곁에 항상 계신다 것이였고, 이를 느낄수 있었다.

2019. 7. 1.

12교구 동역교회 전도지원팀
 이 수 길 집사

♣ 소 감 문 ♣

성 명 : 76 성 옥 권사 팀 명 : 12교구 1팀

동역교회 : 춘천 하늘 시민 교회 사역기간 : 2019년 6월 28일 ~ 6월 30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룩느니라” (롬 8:28)

춘천 하늘 시민 교회에서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역은

춘천 하늘 시민 교회의 목사님·사모님과 성도들과 12교구 전도지원팀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룩하여 주신 성경의 은혜였다.

첫날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하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노방에서도 전도하고.

오후에는 세숫대에서 떡뭍이를 만들어 나누어 주면서 전도 하고

밤에는 금토철야기도회로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둘째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체가 한 곳에서 떡뭍이를 나누어 주며 집중 전도를 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동안 좋은 관계를 가지셨기에 좋은 인상을 남겨 주셔서

알고 계신분도 있었고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마지막 전도는 후평 시장에서 7시까지 열심히 복음 선포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전도하였다.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였다.

토요일밤, 이제는 오직 기도만 할 뿐이었다.

주일 새벽기도에서도 성경의 역사하심을 바랄 뿐이었다.

주일 11시 예배에 한 분 할머니가 처음 교회로 오시기 시작한 후

계속 계속 오셔서~그 시간 교회 앞을 지나가던 아저씨까지

모두 27명이 새로 오셨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은 모두 60명이 있다.

새신자 선물은 30개였는데~

전체 모두에게 드릴 선물과 삼계탕은 60개였는데~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딱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울 뿐이었다.

교회의 좌석이 57개. 보조의자까지 앉아서 예배 드린 가득 채워 주신 예배였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찬송하며 율동하며 특송 부른 우리 전도지원팀이 사랑의 수고로 열심히 전도하여

16명이 오셨고 춘천하늘시민교회 성도님들이 한달간 열심히 특별 새벽기도 하며

주변인들을 전도하여 11명이 오셨고 목사님, 사모님의 권유로 장절자들의 출석까지

더하여 60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룩하여 주시는 성경님의 은혜였다.

♣ 소 감 문 ♣

성 명 : 임 신영 권사

팀 명 : 12교구 1팀

동역교회 : 춘천, 하늘시민교회

사역기간 : 19년 6월28일 ~ 6월30일

우리팀은 많은 단기선교와 동역교회 지원 전도를 여러번 경험을 하신 분들이였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예행대로 잘 진행 되었습니다 비가 오기로 예보가 있어서 은근히 걱정을 하며 떠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한 대로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를 주셔서 길거리, 시장, 아파드산리앞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나누어 주며 또 가림 방문도 하며 열심히 전도를 하였지만 참 쉽지가 않았읍니다.

천국 간치 하는날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며 전도한 그분들의 발길음을 교회로 돌려달라고 힘은다해 기도 하였읍니다 목사님 내외분께서도 눈물로 엄청 기도 하였읍니다 그바람에 우리도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 하였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해 응답 하였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교인이 20명밖에 안되는데 오늘 예배에는 교회가 꽉 차고도 좁혀 앉아야 했읍니다 정말 이 천국 간치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고 ~~이런 좋은 기회~~ 삼계탕이 오자라리 많을까 조금 걱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오늘만이 아니고 계속 이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자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안절부

♣ 소 감 문 ♣

성 명 : 서명선

팀 명 : 12교구 1팀

동역교회 : 중천 하늘시민교회 사역기간 : 2019년 6월²⁸일 ~ 6월³⁰일

추천되어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필수였으면 한분한분 힘들이지 않고
예배후에 점심후에 집중적으로 화를 전하면서
결신하고 계속 주일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할지도 생각이 듭.
이 30명중 몇명이 계속 예배에 참석할까요?

예배중 성경속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처음은
사람들에게 딱 맞는 줄은 말씀이었지만 후속편으로
한사람이나 몇사람을 불러고 복음을 얘기해 주면
보라 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예배드리고 점심먹고
선물주고 고맙고 보낸다면 ... 무슨 형식한번 참여해 주시길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버리지 않을까?)

안목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지옥이 단 떨어져서 천국에 함께 하는 일이 우리 더욱
매진 감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 ^^ ♡♡♡

♣ 소 감 문 ♣

성명 : 이 정 임

팀명 :

동역교회 : 춘천 하늘시인교회

사역기간 : 19년 6월 24일 ~ 6월 30일

춘천의 거리는 차들만이 오고 간뿐
무동인구는 드물게
오르고 가고 무기용은
완세워 정근해 볼지만
막걸기가 쉬지 않았과
와중에도 중년 여인을 만나
복음은 전해본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책임은
주님께 맡겨본다
교회(하늘시인)의 사모님의 역할이
대단 하였음을 느끼 보는
순간이다.

하나같이 사모님의 평판이
좋은 관계로 흐뭇한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

이 교회의 앞면에 사랑이
비쳐 온것은 예견해 보과
화교회에 헌석하는
어르신들께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시고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
그것은 주님이 주셨던
사랑과 은혜의
답례가 아닌가?
오! 주님! 춘천 하늘시인 교회에
성령의 빛 비쳐
주시옵소서

이번 지원 전도 사역은 아파트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녀보니 생각 외로 빈집이 많았습니다. 노방전도로 한분 한분 만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덥고 힘든시간이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말씀생각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힘써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번에 하^늘 시민 교회에서 천국잔치를 하는데 꼭 오세요!”

초청은 했는데 잔칫날 몇분이나 오실까, 많이 안오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새가족 30여분이 초청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